



여수 국가산업단.

/여수시

정유, 정제마진 강세 3분기 ‘방긋’ 석화, 원가부담·수요 부진에 ‘울상’

정유·석화 수익성 격차 확대 전망
중동·러 공급 차질에 정제마진 강세
SK이노·에쓰오일, 영업익 급증 전망
윤활기유 마진 확대도 실적에 기여

석화, 고가 원료 투입에 수익성 악화
롯데케미칼·LG화학, 석화 적자예상
공급 과잉에 실적 회복 장기화 우려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3분기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공급 차질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석화업체들은 수요 부진에 고가 원료 부담까지 겹치며 상반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과 러시아의 석유제품 공급 차질로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윤활기유도 공급 부족에 따른 마진 확대로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각각 2조 원대와 1조 원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

가이드가 집계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6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쓰오일은 1조2372억원으로 439.76% 늘어날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상반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줄면서 적자 전환이나 감익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원료가 투입돼 제품 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렸지만 3분기에는 비싸게 매입한 원료가 시차를 두고 투입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래깅 부담이 커졌다.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도 줄었다. NH투자증권 집계에 따르면 3분기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201.9달러로, 2분기 256.2달러보다 21.2% 축소됐다. 통상 손익분기점의 하단으로 보는 톤당 250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3분기 183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영업이익 1101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1326억 원보다 손실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의 3분기 영업

손실은 증권가에서 1500억~1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약 427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고가 원료 투입과 제품 가격 약세로 한 분기 만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흑자를 유지하더라도 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864억원으로, 지난 2분기 3390억원보다 74.5%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3분기 이후에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롯데케미칼은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원료가격 변동성 확대를 주요 경영 변수로 꼽았다. 신규 공급까지 늘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석화업계의 수익성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수급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삼성SDI, 각형 배터리로 美 ESS 공략

AOP에 총 1.5GWh 공급 확정
에너지밀도 17% 높은 제품 공급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잇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기반과 각형 배터리의 성능·안전성을 앞세워 기존 고객의 추가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다수의 현지 고객과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다.

삼성SDI는 마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A)가 미국 에너지 전문기업 알파오메가파워(AOP)와 1GWh 규모의 ES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체결한 1차 계약을 포함하면 AOP에 공급할 물량은 총 1.5GWh다.

AOP는 공급받은 ESS 솔루션을 내년 텍사스주에서 착공하는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에너지(SPE) 공장 에서 제품을 생산해 연내 공급한다.

공급 제품은 삼원계(NCA) 배터리를 탑재한 일체형 ESS 솔루션 ‘SBB(Samsu

ng Battery Box) 1.7’이다. 고용량 하이니켈 NCA 소재를 적용해 기존 ‘SBB 1.5’와 동일한 20피트 크기에 에너지밀도를 17% 높였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이상 진단과 수명 예측 알고리즘도 적용했다.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인 EDI도 탑재했다. ESS 안전 인증인 UL 9540 등을 획득했으며 미국 소방협회의 화재안전 설치 표준인 NFPA 855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잇따른 수주에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 대비 내구성과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데다 북미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업체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폴 최 AOP 최고경영자(CEO)는 “삼성SDI의 미국산 ESS는 당시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2차 계약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미국 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AI·서랍형 냉동고로 프리미엄 강화

디오스 AI 시스템 얼음정수 냉장고 선택
서랍형 냉동고·맞춤 보관 기능 탑재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과 서랍형 냉동고를 적용한 신형 얼음정수 냉장고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스템(STEM) 얼음정수 냉장고(이하 스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스템은 직수관으로 물을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LG전자의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다. 크래프트 아이스와 각얼음, 조각 얼음 등 다양한 형태의 얼음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양쪽으로 여닫는 하단 냉동고를 중간과 하칸으로 구성된 서랍형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중간에는 냉동고 냉장 모드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드로어’를 적용했다.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이류식, 밀키트, 유제품, 와인, 김치, 육류, 생선 등 총 14종의 식재료별 보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AI 기반 신선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 기능도 강화했다. ‘AI 신선케어’는 냉장고 사용 시간대와 문 개폐 횟수 등을 학습해



LG전자가 AI와 서랍형 냉동고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스템(STEM) 얼음정수 냉장고’를 출시했다. /LG전자

식사 준비 전 집중 냉각 모드를 작동시킨다. AI 음성인식 기능도 적용했다. 사용자가 보관할 식재료와 기간 등을 말하면 적합한 보관 위치와 모드를 추천하고, 음성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한다. 냉장고를 통해 씽큐 앱에 연동된 다른 가전도 제어할 수 있다.

식재료별 맞춤 온도 보관을 지원하는 ‘신선 맞춤실’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내부 공기 중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와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오토 클로징’ 기능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수소차 5만대 돌파… 보조금은 ‘뒷걸음’

넥쏘 출시 8년 만에 누적 판매 5만대
보조금 예산 축소·충전망 확충은 더더
정책 실효성 높여 수소 생태계 키워야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다.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정부의 보급 지원이 맞물려 이룬 성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예산 감액과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등은 수소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차량 보급부터 충전망 구축까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 성장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수소전기차 5만262대를 판매했다. 2018년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 출시 이후 8년 만이다. 2020년 누적 판매 1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2022년 2만대, 2023년 3만대를 넘어서는 등 시장 기반을 넓혀왔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연료전지 연구에 착수한 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ix FCEV를 선보였다. 2020년에는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현대차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양산하며 상용차로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출시한 디 올 뉴 넥소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최대 720km까지 늘렸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완성차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수소탱크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구축했다. 현대차가 양산 중인 넥쏘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이며, 60여개 협력사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수소연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수소사업체 종사자는 약 3만 7000명, 관련 기업은 약 3000개로 수소 산업의 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

를 뒷받침할 정책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가 확보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올해 9월 말 기준 수소전기승용차의 지방비 매칭 물량은 국비 편성 6000대의 84.9%인 5093대에 그쳤다. 수소버스 등 상용차도 국비 편성 1800대 대비 지방비 확보 물량이 약 1270대로 70.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집행 부진이다음 연도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면 시장 위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의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약 23%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주변 소리 들리는 무선 이어폰

첫 클립형 ‘갤럭시 버즈 온’ 공개
귀 모양 따라 밀착해 착용감 높여

삼성전자가 귀를 막지 않으면서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첫 클립형 무선 이어폰을 선보인다.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에 저음과 통화 품질을 보강하고, 소리가 밖으로 새는 현상을 줄였다. 26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온’을 27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블랙 단일 색상으로 가격은 29만9000원이다. 삼성닷컴과 오픈마켓, 전국 삼성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버즈 온’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주변 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은 귀에 끼워 고정하는 클립형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형상기억합금 소재가 귀 모양에 맞춰 유연하게 휘어지며 밀착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움직임이 큰 운동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을 돕는다.

음향 기능은 저음 강화와 누음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트윈부스트 스피커’로 풍성한 저음을 구현하고 갤럭시 버즈 시리즈 최초로 ‘누음 저감’ 기술을 적용했다. 다만 귀를 막지 않는 디자인 특성상 음량과 귀 모양, 주변 소음 등에 따라 소리가 일부 새어 나올 수 있다. 조용한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